Market Wrapper

주식시황. 조준기, 3773-9996, junkee.cho@sks.co.kr
R.A. 박유진, 3773-9938, youjin.park@sks.co.kr

SK secur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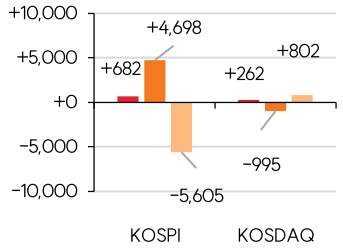
2024-04-26

극한의 퐁당퐁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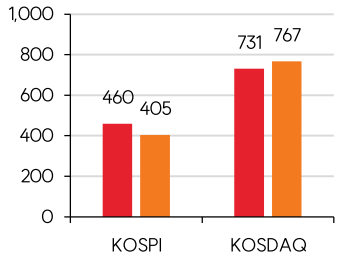
KOSPI 일중차트

KOSDAQ 일중차트

수급 동향(기관/외국인/개인)(억원)



상승/하락 종목 수



오늘도 미국 증시 종료 후 나온 빅테크 실적에 따라 미증시 선물과 함께 우리나라 증시도 움직이는 장세 시현. 인텔은 가이던스 실망에 시간외 8%가량 하락 중이나 글로벌 시가총액 1위, 4위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각각 시간 외에서 4.3%, 11.4% 치솟으며 국내 증시도 덩달아 수혜. 코스피는 4 월 12일~4월 17일동안 4거래일 연속 하락한 이후 4월 18일부터는 상승과 하락을 하루 단위로 번갈아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 외국인 매매도 매일매일 방향이 변하는 모습인데 오늘은 또다시 매수로 전환하며 코스피에 대해 1조 가까이 순매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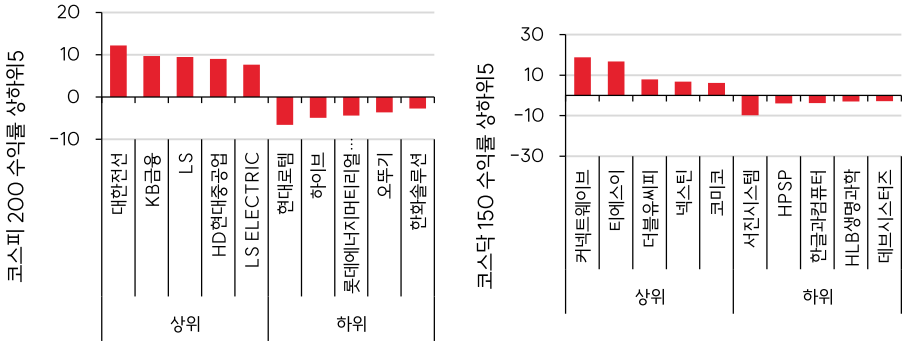
*4/17~4/26 코스피 1D수익률 추이: -0.98% / +1.95% / -1.63% / +1.45% / -0.24% / +2.01% / -1.76% / +1.05%. 코스피 종합지수의 4월 17일 종가가 2584.18pt, 4월 18일 종가가 2634.7pt였는데 오늘 종가가 2656.3pt이니 최근의 퐁당퐁당 장세동안 조금이나마 오른 것이 사실이나 체감상으로는 인덱스가 5-10%정도는 빠진 듯한 고스트레스 장세. 방향성이 없고 매일매일 내용이 바뀌어 매매를 너무 활발히 했다간 자칫하면 양방으로 터질 수 있는 환경. 차라리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유지 및 미세 조정하면서 관망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가능성이 높음

최근 중국 쪽에서의 적극적인 부양책에 더해 자금 유입 등 여러가지 호재, 그리고 시장에서 중국 부동산 등에 대한 톤이 상향되는 그림 나오면서 홍콩 증시가 강한 모습. 최근 조정장에서도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으며 오늘은 항셍 지수는 2% 중반대 강세, 항셍테크지수는 5%대 급등 중. 중국 경기 반등에 대한 스토리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계속 좋게 볼 만하다는 생각

전체적인 하루 하루의 분위기는 미국 쪽에서 결정하지만 그래도 지수 안에서 실적과 컨퍼런스 콜 톤에 따라 강한 업종들은 등장. 오늘은 금융주가 지수 대비 크게 아웃퍼폼함. 금융주 시가총액 1위인 KB금융은 ELS 실적 관련 대규모 손실 반영에도 호실적 기록 및 분기별 균등 배당 지급 + 향후 배당총액 최소 유지 혹은 상향 + 꾸준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 적극적 주주환원 정책 발표하며 오늘 9.67% 상승. 다시 기대감 크게 반영되며 KODEX 은행은 +4.65% 상승했고 KODEX 보험 +2.30%, KODEX 증권 +1.88% 등 밸류업 기대감 다시 확산

오늘 미국 장 열리기 전에 1) 엑손모빌과 셰브론 등 에너지 기업들 실적발표 예정 및 2) 미국 3월 PCE물가 발표 예정. 어제 미국 1분기 GDP 쇼크와 함께 발표된 1분기 GDP물가 및 1분기 근원 PCE물가가 시장 예상치 상회하며 스태그플레이션적 분위기 형성되었는데 어제 미리 어느정도 반영한 만큼 오늘 3월 지표에서 컨센서스(헤드라인/코어 모두 MoM +0.3%)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타격이 아주 거세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 물론 이러한 분위기 자체는 시장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것이 사실

다음 주도 이번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 무게. 차주 애플과 아마존, AMD, 일라이 릴리 등 대형 기업들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어 최근의 실적 영향력 극대화 구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더해 미국 5월 FOMC도 있음. 이번 주 기업들 실적과 어닝콜 톤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내용과 전망을 담았다면 증시도 방향성이 확실하게 정해졌겠지만 지수 일일수익률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방향성이 설정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음. 다음 주 이벤트들 거치며 조정이 종료될지 아니면 더 이어질지 결정될 가능성 지배적

KOSPI 업종별 수익률 (단위: %)

KOSPI 200 및 KOSDAQ 150 수익률 상/하위 5종목 (단위: %)